

좌담회

한국농공학회 활성화 방안 좌담회

□ 일 자 : 2003년 5월 19일

□ 참 석 자 : 강문성(서울대), 고보성(농기공), 김병진(삼성물산), 박종민(농림부), 박태선(농기공), 이달원(충남대), 이봉훈(농림부), 이정재(서울대), 장예환(한국농공학회), 조래청(농림부), 한경수(농기공) - 이상 가나다 순.

1. 서 언

농업과 농촌은 과거 농가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업의 역할이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던 시대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시대에 농공분야는 관개배수, 경지정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간척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과 도로교통·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등장 등으로 사회구조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WTO,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력 강화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남북협력의 급진전 등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 농업과 농촌의 역할은 식량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공학도 전통으로 다루어 온 농업생산을 위한 관개배수 분야와 더불어 농촌계획, 농촌자원보전 및 육성, amenity 유지, 농촌정보 등의 분야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면서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공학회는 농공분야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회로서 이러한 미래의 변화를 인식하고 농공분야의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농공학회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공분야의 기술자 및 관련자 등을 결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고통의 분담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회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학계, 관계, 사계, 업계가 참석한 '한국농공학회 활성화 방안 좌담회'에서 논의되었던 한국농공학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회활동 및 방안을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의 내용은 참석자들의 원고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정리한 것이다.

2. 한국농공학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한국농공학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농공분야 기술자 및 관련종사자의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좌담회에서는 한국농공학회와 한국농공학회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회장선출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무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총회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며, 경선이 될 경우 특정지역 회원들을 대거 동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② 학회내 의사수렴기구 전무한 실정이다.

학회의 의사결정은 회장단에서 결정되며, 임원이 아닌 회원들의 의사수렴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③ 학회 홈페이지 체계 및 운영이 부실한 상태이다.

학회 홈페이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타 학회에 비하여 정보공유, 의견수렴, 회원관리 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분과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

분과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10개 분과 중에서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 분과위는 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⑤ 한국농공학회지 및 학술발표회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학회지가 교수들의 논문 게재를 위한 학회지로 전략할 우려가 있으며, 회원들의 관심분야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⑥ 기 타

- 회장의 역량 및 역할에 대한 능력 제고
- 농공학과 교수들의 소극적 참여
- 학회 운영비 확충방안 부실

- 회비 미납회원의 관리 부실
- 타 학문분야에 대한 보수적 대응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그 어떤 이에 대한 불만이나 적대적 감정은 전혀 없으며, 한국농공학회의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하여 모든 회원이 결집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3. 한국농공학회 활성화 방안

한국농공학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모든 회원의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2003년도에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함에 따라 과거의 농공학회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농공학회로 다시 태어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회장단은 일부 조직보완이나 부족한 운영비의 확보방안 강구와 같은 지엽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보다 효과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고통의 분담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회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좌담회에서 학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을 중점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한국농공학회 회장선출방식 및 회원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 학회장 선출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학회장은 학회를 이끌어 나가며,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서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활성화시켜야 할 중책을 맡게 되므로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의 실제 참석 인원은 많아야 50여명 모이는 열악한 현실에서 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선이 될 경우, 학연·지연을 빌어 회원을 동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학회장 선출체계로는 학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회장의 선출방식은 회원들에게 선거용지를 우편으로 우송하여 회송하는 방안이나 등록된 E-mail을 통해 표결하는 방안 등으로 선거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선거권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한국농공학회 회원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농공학회가 회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Fellow 회원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종신회비제도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학회비를 납부한(자격은 토의 후 학회에서 차후 결정) 회원은 이사회가 승인을 거쳐 Fellow로 추대하도록 한다. 다만, 현재의 종신회원은 Fellow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Fellow 회원은 학회비를 면제해주고, 학술발표회에 당해 연도 신입 Fellow 사진 전시 및 소개와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Fellow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증대될수록 회원의 학회 참여는 물론 회비 자진 납부의 효과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관리로 학회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매년 많은 수의 학생이 농공학과(학과명칭은 다양)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이나 또는 농공분야에 취업하고 있으나, 이를 학회원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등록된 회원들도 학회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비 납부 실적도 매우 저조하여 학회의 운영난을 초래하고 있다 (등록회원 약 1,500명, 회비납부 3백명 수준).

또한, 과거에 회비를 2년간 미납한 회원은 학회지 우송 중지, 연락단절로 인해 영원히 학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지로에 의한 학회비 납부가 행정적으로는 편리하나, 회원들은 잊어버리고 못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회비 미납회원들에게는 여러 채널을 통한 독촉과 참여촉구 등 관리가 필요하며, 학회지는 우송을 중지하더라도 여타 연락사항은 계속 통보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회비 미납회원은 연락망을 구축하여, 특히 E-mail을 통해 계속 소식을 전달하고 지역별, 또는 기관별 연락 책임자는 학회참여와 회비납부를 계속 촉구하여 회원 이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나. 학회내 일반회원의 의사수렴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 젊은 세대의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최근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젊은 세대의 능력과 결집력이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농공학회는 이러한 젊은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지 못해 왔으며, 그것이 활성화의 저해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가 활동하지 않는 학회는 이미 자생력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회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분과위에 젊은 세대들이 대거 참여토록 하고, 이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농공분야 종사자 (주로 농림부, 농기공)들이 학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가시적인 활동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젊은 세대 주관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토록 적극 지원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한 농공학회 참여의 붐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 학회내 의사수렴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한국농공학회가 사람 또는 학문 중심의 소수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회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회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거나 반영될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회원중심의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편협된 학회의 운영에서 열린 마음으로 의사수렴을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기능이 필요하다.

학회내 의사수렴을 위해서는 학회지 외에도 소식지 정기 발간, 전자우편을 통한 소식 제공 등을 통한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홈페이지의 게시판, 토론장 등을 구축하여 일반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학회 홈페이지 운영을 개선하고 회원간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 학회 홈페이지 구축과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지식과 정보의 교류 및 보급, 기술발전

도모를 꾀하고 있다. 국내외에 많은 학회에서 이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학회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논문검색, 학회소식, 신기술정보, 회원동향, 의견수렴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회가 회원에게 기대하기 보다는 학회가 회원을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농공학회의 홈페이지는 운영 자체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상당한 보완과 체계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회 홈페이지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완·운영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학회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 회원간 유기적인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농공학회의 소식, 회비납입통지 등 연락사항이나 회원상호간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회원들의 연락망을 구축(주소, 전화, E-mail)하여 전체 회원들이 보유토록 E-mail을 통해 송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대학, 농림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농업기반공사 본사 및 도본부, 업계별로 연락 책임자를 선정하여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운용해야 한다.

| 구분 | 계 | 11개 농과대학 (교수) | 농림부 (토목직) | 농업기반공사 (토목직) |
|----------|-------|------------------|--------------|-----------------|
| 농공분야 종사자 | 1,944 | 53 | 37 | 1,854 |

<참고 : 주요 기관별 농공분야 현직 종사자>

라.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능동적인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을 발탁해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농공학회 활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각 분과위가 농공학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분과위는 특히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안 과제발굴과 논의를 통해 분야별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과위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고, 분과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인사를 분과위원장에 발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과위원들도 직업별, 연령별, 전공분야별로 고루 기용하되 특히 정책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농림부의 담당직원들이 필히 관련 분야에 소속되어 정보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림부 담당자들의 역할은 분과위 활동외에도 학회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며, 또한 농업기반공사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의 학회활동 참여 유도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분과위 활동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 현실을 반영한 분과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미, 농촌개발정책은 관개배수 등 생산기반조성 분야에서 농촌관광, 도시자본유치를 통한 농촌활성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으며, GIS, DB구축을 통해 농촌개발분야의 정보화가 활발히 진전된 상태이다. 또한, 노령화된 학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의욕적인 젊은 세대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 40대 미

만의 학회원으로 구성된 2030포럼(가칭)을 별도 분과위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분과위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촌자원정보화 분과위, 농촌관광 분과위, 2030포럼(가칭, 20~30대 모임) 등을 신설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농공학분야 외에 현실을 고려한 영역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2030포럼의 위원장은 Idea제공을 위해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다.

마. 한국농공학회지 및 학술발표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 한국농공학회지의 발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농공학회의 효율적인 발간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현재의 한국농공학회지를 학회 소식지와 학술 논문으로 구성된 한국농공학회 논문집(가칭)으로 분리 발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회지는 많은 페이지와 부수를 발간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분야의 변화하는 사회적인 쟁점이나 신기술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며, 학계의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학회 회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자 및 관련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식지를 따로 발간하여 농공분야의 쟁점과 신기술 등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공학회 논문집의 학술논문의 심사는 분과위원회의 활성화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전문분과위원회에 일임할 것으로 제안한다. 이는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분과위원들간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고, 폭넓은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된 논문은 학회 편찬위원회의 검토 후 학술논문집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농공학회지의 구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농공학회지의 발간 방식의 개선에 따라 그 구독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학회 소식지는 모든 학회회원 및 관련 단체에게 무료 발송하여 회원의 관심 및 참여 유도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학술논문집은 구독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되, 홈페이지를 이용한 E-Journal로 병행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 이용은 회원가입 후 고유ID를 부여 받은 자(학회에서 토의 후 자격 결정)에 한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외는 편당 일정액을 지불하여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편당 이용금액 결제 방법은 핸드폰 이용 또는 일정 금액 적립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학술논문집 목차와 요약문은 무료로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학술발표회는 학회모임을 축제로 승화시켜 학술발표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회원들이 즐거운 일로 받아들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즐거운 학회의 구현은 이벤트 기능 강화, 일반인을 위한 행사기능 강화, 재미있는 행사 프로그램 등을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대외 홍보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술발표회의 주체가 학계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업계에서도 주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학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술발표회는 모든 농공분야를 총괄하여 학술발표회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어, 전체적인 관리가 집중되어 있고 논문집의 분량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학술발표회는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분과위원회에서 발표논문 접수, 선정, 운영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학술발표회 논문집을 없애고 분과별로 취합하여 논문발표집을 발간하거나 E-Journal로 운영하며, E-Journal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학술발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 기타 제안사항

■ 회장단은 비전을 갖고 그에 따른 역량 및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회장단은 비전이나 정책제시를 통한 목표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그 역량과 역할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학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수익은 회장단에서 할당하여 협의를 거쳐 수주하고 있으나 회장단이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고 있으며, 이를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사무국에서 모든 광고 수익과 관련된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무국의 부담을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회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격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회장단은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복안과 추진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학계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전국의 11개 농과대학 농공학과(일부대학은 명칭변경)교수는 전부 53명으로 긴밀한 유대관계하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교수만이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많은 교수들은 학회 참여에 미온적이다. 학회 활동에 의욕적인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분과위원장을 맡아 분과위를 중심으로 한 학회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학회는 문자 그대로 학문적인 모임이므로 53명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인 농공종사자들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다만, 학회 활동이 극히 침체된 현시점에서는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등 농공분야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회를 정상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지속적인 학회운영비 확충 방안을 제안한다.

학회운영비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학회원의 회비 수익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학회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회원 확보와 회비납부를 독려하여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토록 해야 하지만, 대부분 학회의 연구활동, 찬조금, 광고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구활동, 찬조금, 광고수익 등은 유동적이어서 안정적, 지속적인 학회운영비 확충에 한계가 있다.

학회운영비의 확충방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농업기반공사는 과거에 농조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가 학회를 지원해 왔던 만큼, 적정금액을 지속 지원

토록 하는 협조가 필요하다. 농림부·농업기반공사 소속 임원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학회를 적극 지원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농업기반공사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학회의 단체회원으로 영입하거나 학회활동에 참여시킴으로서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산·학간에 학문적·기술적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현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회운영비의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학회를 통해 연구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일정비율(예를 들면 30%)을 학회 운영비로 회사하여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운영비로 내는 비율은 예산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되, 학회 운영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당분간 비율을 높여서 운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회운영비 확보 방안은 사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농공학회의 발전 노력이 가시화 되어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타 학문분야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학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공 또는 비전공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GIS, RS, GPS 등 정보기술과 초음파, 음파 등 계측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농공분야에 접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학회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결 언

본고에서는 한국농공학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좌담회에서 논의되었던 학회의 산재된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참석자들의 논의와 심의를 거쳐 제안하였다.

농공학회 활성화의 필요성은 이번에 새로 출범한 회장단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우리의 농촌현실 만큼이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으며, 그만큼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농공학 회원 각자가 위기의식을 공감하며,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농공학회의 앞날은 계속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학회 활성화 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되어 왔으나, 지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되어 있다.

냉소적인 자세로 비판하기보다는 회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농공학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전화 한통, 회원확보 한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효과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할 막다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음을 학회원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학회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농공학회 회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회장단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내주어 빠른 시일내에 학회의 체질개선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